

명대 개인 장서가의 장서 활동과 출판사업에 대한 고찰 — 모진(毛晉)의 급고각(汲古閣)을 중심으로

서원남*

【목 차】

1. 서론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진의 장서활동
3. 문화 창달을 위한 급고각의 출판사업
4. 결론

【초록】

고대 중국의 개인장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명대는 국가에서 문연각(文淵閣)을 설치하여 문헌의 출판과 소장을 엄격하게 관리하였기에 국가 주도의 문헌 출판 사업이 크게 제한을 받았다. 반면 경제적 번영과 인쇄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개인 장서가들의 출판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금의 강소성 상숙현(常熟縣)은 명대 경제문화가 가장 발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으며, 출판의 중심지였다. 모진(毛晉)은 상숙현 출신으로 명말 청초 시기에 활동한 장서가이며 출판가이다. 명대를 대표하는 개인 장서가이며 출판가인 모진의 고문헌 수집과 출판 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소장 도서가 84,000책에 달하며 출판한 서적도 경사(經史)와 소설, 필기류를 포함하여 600여 종에 달한다. 그가 수집한 선본과 그 선본을 저본으로 한 많은 고문헌의 출판은 중국 고문헌의 보존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모진의 평생 가업인 장서와 출판활동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중국의 고문헌 정리에 있어 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명대, 장서, 모진, 급고각, 문헌정리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swnyelin@hanyang.ac.kr)

1. 서론

중국의 개인 장서의 역사는 공자의 오경 소장과 당시 사상가들의 저서 소장을 그 출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인하여 개인 장서 활동이 일시 금지되었다가 서한 이후 협서율 폐지로 개인들의 장서가 합법화되었다. 동한 시기에는 유안(劉安), 유덕(劉德), 채옹(蔡邕) 등 역사적으로 이름난 개인 장서가들이 출현하였다. 위·진남북조와 수당 시기를 거치면서 수백 권에서 수천 권을 소장한 개인 장서가들이 출현하기도 하였고, 장안 중심의 장서 활동이 성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¹⁾ 당말 오대의 조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송대에는 도서 출판과 장서 활동이 중국 전역에서 성행하여 4-5만 권을 소장한 장서가들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10만 장서를 보유한 사람들까지 출현하였다.²⁾ 앞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송대 장서가들의 수가 120여 명에 달해 그 수가 송 이전의 장서가들을 합친 인원보다 많다고 한다.³⁾ 원대에는 비록 이민족 통치의 시대였지만 장서활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원초의 장문겸(張文謙)과 중기의 조맹부(趙孟頫), 장사명(張思明), 원말의 소천작(蘇天爵), 고덕휘(顧德輝), 예찬(倪瓚) 등 많은 개인 장서가들이 출현하여 명대의 장서 및 출판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명대는 국가에서 문연각(文淵閣)을 설치하여 도서들을 소장하였지만 엄격한 관리제도로 인하여 국가의 장서 활동이 크게 제한을 받았다. 반면 경제의 번영과 인쇄술의 발달, 송원 시기로부터 전해진 장서문화의 계승 발전 등으로 인하여 개인 장서가들의 문헌의 수집과 출판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⁴⁾ 명대 강절(江浙)지역에 속한 상숙현(常熟縣)은 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출판의 중심지였다. 역대로 개인들의 출판활동에 대한 총평을 보면, 張之洞은 “실력 있는 호사가에게는 스스로 남보다 덕이 모자라고 학문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 이름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면, 고서를 출판하여 전하는 방법만 한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출판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함은 물론이고, 예를 갖추어 전문가를 모셔 선본을 선별하고 꼼꼼하게 교감하여 좋은 책을 출판해야만 그 책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출판한 사람도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⁵⁾라고 하여 부정적인

1) 劉汝霖, 「魏晉南北朝時期的私家藏書」, 「隋唐五代時期的私家藏書」, 『圖書館』, 1961, pp.57-59.

2) 周密, 「書籍之厄」, 『齊東野語-卷十二』, 商務印書館, 1990, pp.4-5.

3) 潘美月, 『宋代藏書家考』, 學海出版社, 1980, p.52.

4) 王余光, 『藏書四記』, 湖北辭書出版社, 1998, p.84.

5) “凡有力好事之人, 若自揣德業學問不足過人, 而欲求不朽者, 莫如刊布古書一法. 但刻書必須不惜重費, 延聘通人, 甄擇秘籍, 詳校精雕, 其書終古不廢, 則刻書之人終古不泯.” 范希曾 編, 瞿鳳起 校點, 『書目答問補正』, 上海古籍出版社, 1983, p.341.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쉽지 않은 활동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王國維는 “도서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략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옛것에 대하여 소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⁶⁾라고 개인 출판가들을 두 부류로 분류 평하였다.

毛晋은 지금의 강소성 상숙현 출신으로 명말 청초 시기의 장서가이자 출판가이다.⁷⁾ 그가 소장한 도서는 84,000책에 달하며 출판한 서적도 경사(經史)와 사곡, 소설, 필기류를 포함하여 600여종에 달한다. 목경루(目耕樓)와 급고각(汲古閣) 등 출판 및 장서를 위한 장소는 그 명성이 매우 높았다. 『정지거시화(靜志居詩話)』에서는 “(급고각)주인 모진은 희귀본을 소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중년에 와서는 『오경』과 『십칠사』 그리고 시와 사 및 희곡의 극본과 당송 시기와 금원 시기의 별집과 패관에 해당하는 소설에 이르기까지 출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가 여러 지역을 통틀어 도서의 수집에 들인 공은 매우 크다고 정평이 나있다.”⁸⁾라고 하였다. 또한 육세의(陸世儀)의 『부정시집·증모자진(桴亭詩集·贈毛子晋)』에서는 급고각에 대하여 “높은 장서각에는 성 백 개를 두를 만큼의 서적이 소장되어 있다. 급고각 주인은 바르게 앉아 교감에 몰두하니 그 이름이 나라 밖까지 전해져 학자들이 몰려들어 그 광경을 지켜 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휘장을 걷으니 물빛이 궤안에 아른거리고 그 서가들은 마치 물에 떠 있는 듯하며, 난산과 어우러진 풍경은 처마기둥을 비추네. 변하고 변하는 세상에서 어찌 자문해야 하는지 봉우리를 감아 도는 생황 소리에 달도 함께 비춘다.”⁹⁾라고 극찬하였다.

모진은 29세가 되던 해에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부친의 가업을 이어 장서와 출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40년이란 오랜 시간동안 장서와 출판에 전념했던 모진은 명청 시기 개인 장서 및 출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모진의 평생 가업인 장서와 출판 활동에서 보인 주요 특징과 중국의 고문헌 정리에 있어서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刊書之家約分二等，一曰好事，二曰篤古” 王國維, 『觀堂集林·雪堂校刊君書敘錄序』, 商務印書館, 1983, p.20.

7) 지금의 강소성 상숙현(常熟縣)은 역대로 많은 장서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대대로 개인 장서 문화가 발달하였다. 송원 시대를 거쳐 명대에 이르러 개인 장서와 출판 활동이 크게 번성하여 趙用賢과 그 아들 趙琦美, 全謙益, 毛晋, 陳察, 楊儀 등 많은 장서가들을 배출하였다.

8) “主人毛子晋，性好儲藏秘冊，中年自五經十七史及詩詞曲本唐宋金元別集稗官小說靡不發雕。公諸海內，其有功於藝苑甚巨。” 朱彝尊 編, 『靜志居詩話』, 人民文學出版社, 1990, p.264.

9) “高閣藏書擁百城，主人匡坐校讎精，名傳海外鷄林識，學重都門虎觀聲。卷幔湖光浮几案，憑欄山色照檐楹。滄桑世間何須問，緜嶺吹笙月正明。” 陸世儀, 『桴亭詩集·贈毛子晋』.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毛晉의 藏書活動

1) 선본(善本)의 중요성에 근거한 장서

장서는 서적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화 활동이다. 모진의 장서와 출판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진계유(陳繼儒)의 『汲古閣書跋·서(汲古閣書跋·敍)』를 통해 서적에 대한 모진의 열정적인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나의 벗 모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옛것에 빠져드는 취미가 있다. 누군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서적을 갖고 있으면 마치 줄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거나 산을 파내어 보물을 찾듯 백방으로 수소문 하여 구매하였다. 마침내 서적을 얻게 되면 그 즉시 손수 필사하였는데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았으며, 빠지거나 사라진 부분은 보충하였다. 가령 곤충이나 쥐가 갉아먹어 손상되거나 비바람과 습기에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일일이 정돈하고 판각하여 세간에 유통시키고, 짧은 서문을 덧붙였다. 각 서적을 간행할 때에는 조작하여 지어내거나 억지로 옛사람의 뜻에 갖다 맞추지 않았다. 마음속에 책의 전체가 있었기에 본말의 맥락이 갖추어져 있었고, 눈 안에 바라보는 참됨이 있었기에 추호의 실수가 없었다. 가난한 선비든 배부른 선비든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놀라움이었다.¹⁰⁾

이처럼 모진의 장서 활동의 핵심은 선본의 수집과 신중한 교감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는 선본 도서의 수집이 양질의 서적을 출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깊이 인식하였다. 그런 까닭에 모진은 선본 구매를 위해서는 거금을 아끼지 않았다. 『汲古閣主人小傳』의 기록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문 앞에 방을 붙여 알리기를‘송본 서적을 소지한 자가 오면 문 안의 주인이 장당 가격을 지불하며, 장 당 200량을 쳐준다. 구조본을 소유한 자가 오면 장 당 40량을 쳐준다. 통행본(通行本) 중 선본 서적을 가지고 온 자에게는 다른 이보다 200량을 더 쳐준다’이라고 써 붙였다. 그리하여 호주 지역의 서적 운반선들이 칠성교 모진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다. 당시 마을에서는‘360일 장사를 다니는 것보다 모씨 집에 책을 파는 것이 더 낫다’라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은 도서가 8만 4천 책이며,

10) “吾友毛子晉，負妮古之癖，凡人有未見書，百方購訪，如縋海鑿山，以求寶藏。得卽手自鈔寫，糾訛謬，補遺亡，卽蛛絲鼠壤，風雨潤濕之所糜敗者，一一整頓之，雕板流通，附以小跋，種種當行，非杜撰判斷硬加差排於古人者。蓋胸中有全書，故本末具有脈絡，眼中有真鑑，故真贗不爽秋毫。無論寒暑嘵腹之儒，駭未曾有。” 陳繼儒，「隱湖題跋·序」，常熟丁祖蔭(1919)『虞山叢刻本』，第9冊，第1a.

모두 급고각과 목경루를 지어 소장하였다.¹¹⁾

위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얼마나 많은 서상들이 모씨의 집으로 몰려들었는지 알 수 있다. 모진의 천금을 아끼지 않는 노력으로 인하여 다량의 선본서와 고본들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전겸익도 그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모진은 경사자집의 모든 서적을 소장하였으며 소장된 도서들에 대하여 교감에 심혈을 기울인 후에 출판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학자들로 하여금 학문의 원류를 살피고 그들에게 배움의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밖에도 유실된 옛 서적을 지속적으로 탐문하였고 희귀본들은 수집하여 부족한 부분과 빠진 부분을 모두 보충하여 바로 잡았다. 그리하여 서적과 책갑들이 모두 모진의 것들로 세상에 유포되었다.”¹²⁾라고 언급하며 그의 장서와 출판 활동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비일비재한 서상들의 속임수를 피해 모진이 선본의 수집에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감 및 판본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본의 구입에 있어서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모진은 송원 시기의 판본들을 대량으로 소장할 수 있었다. 『爲昆湖毛隱居六十乞言小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장남지역의 뛰어난 장서가로는 사천 섭성지의 녹죽당, 운남의 만권루를 필두로 근간에는 상숙현의 급고각을 꼽는다. 경인년 10월에 강운루가 화재를 당한 연고로 모진의 급고각은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장서각에 오르면 마치 용궁에 온 것처럼 고기들이 자유롭게 노닌다. 또한 물고기들이 두려움이 느껴지면 갑자기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상하 삼층 구조로 지어졌으며 차례대로 모두 열두 개의 서고로 나누어져 있다. 가운데에는 경사자집의 도서와 불교 및 도교류 서적들을 소장하였는데, 모두가 남송과 북송의 궁궐에 소장된 것들이 전해진 것이다. 그 가운데 종이가 훼손된 곳은 꼼꼼하게 복원하니 글씨들이 빛에 반사되어 위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원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전해진 것도 있는데 대체로 호사가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서적들이다.¹³⁾

11) “榜於門曰：‘有以宋槧本至者，門內主人計葉酬錢，每葉出二佰；有以舊鈔本至者，每葉出四十；有以時下善本至者，別家出一千，主人出一千二百’於是湖州書舶雲集於七星橋毛氏之門矣。邑中爲之修曰：‘三百六十行生意，不如鬻書於毛氏’前後積至八萬四千冊，構汲古閣，目耕樓以度之。”葉德輝，『書林清話』，中華書局，2005，p.70.

12) “子晉於經史全書，勘讎流布，務使學者窮其源流，審其津涉。其它訪佚典，搜密文，皆用以裨補其正。於是，縹囊緗帙，毛氏之書走天下明。”毛晉，『汲古閣書跋』，上海古籍出版社，2005，p.56.

13) “江南藏書之富，自玉峰景竹堂，婁東方萬卷樓後，近屈指海虞。然庚寅十月絳雲不戒於火，而巋然獨存者，惟毛氏汲古閣。登其閣者，如入龍宮鮫肆，既怖急又踴躍焉。其制上下三楹，始子訖亥，分十二架，中藏四庫書及釋道兩藏，皆南北宋內府所遺，紙理縝滑，墨光騰刺，又有金元人本，多好事家所未見”張宗芝等錄，『以介編』，常熟丁祖蔭(1919)『虞山叢刻本』，第9冊，第1ab.

이밖에도 풍반(馮班)은 “모진의 급고각의 장서는 십만 권에 달하여 그 수량이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전국의 고관 명사들이 급고각으로 오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이르는 형상과 같았다.”¹⁴⁾라고 묘사하였고, 손조량(孫朝讓)은 “급고각은 세상에 전하여지지 않는 서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을 짓고 서가를 넣어서 그곳에 책들로 채웠다. 금서와 석고 등 소장된 문헌 자료들은 그 출처가 다르며, 도가와 불가의 경전도 모두 빠짐없이 소장하였다. 눈으로 보면서 옳고 잘못된 글자는 바로잡아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하였으며, 양한시대의 주석서들은 어찌나 정교하고 상세한지 경사자집의 서적들이 빠진 것이 없을 정도로 소장되어 있어 그 양이 백 개의 성 높이만큼 이른다고 한 것이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¹⁵⁾라고 평가하였다. 모두가 급고각장서의 수준과 방대하고 다양한 선본서의 규모를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2) 장서를 통한 고적의 가치 제고

왕함회(王咸繪)의 『虞山毛氏汲古閣圖』에는 “모진의 부친 사당이 은호 물가의 장서각과 이어져 있는데, 정면에 ‘급고’라고 써 있다. (급고각) 장서는 순서에 따라 경사자집의 도서들을 나누어서 소장하였는데, 송원시기의 판본서가 아니면 나열하지 않았다. 상아로 만든 책갈피와 옥으로 장식된 편액에 바람이 불어오면 부딪쳐 울리는 소리가 난다. 나는 호수에 있는 서실에 기거하여 책을 보았는데, 결국 열두 해를 보냈고 얻고자 한 자료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서적을 뒤적이며 얻었다. 임오년 가을 모진이 서신을 보내어 나에게 그림을 부탁하였기에 이 그림을 그려서 선사하고 더불어서 한수를 더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할 따름이다.”¹⁶⁾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하여 모진의 급고각이 송원시대 선본서의 서고로서 그 소장도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모진은 송본의 수집뿐만 아니라 고본의 수집에도 온 힘을 쏟았다. 예를 들면 그가 육우의 저작을 수집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4) “隱湖汲古之閣藏書數十萬卷，富甲海內，四方高人名士歸隱湖如水之於海。” 張宗芝 等錄，『以介編·海虞馮定遠』，常熟丁祖蔭(1919)『虞山叢刻本』，第10冊，第12a.

15) “汲古之閣絕世無，充棟插架餘縹緗。金書石鼓萃靈異，琅函梵篋爭輝煌。目訟手讎矻無暇，蟲魚箋注何精詳。四庫收羅無缺逸，百城高擁非誇張。” 張宗芝 等錄，『以介編·海虞馮定遠』，常熟丁祖蔭(1919)『虞山叢刻本』，第10冊，第6a.

16) “子晉社主結藏書閣於隱湖之濱，顏曰汲古，次以甲乙，分以四庫，非宋元繡梓不在列焉。牙籤玉題，風至則瑯瑯有聲也。余寓讀湖齋，遂盈一紀，所得於飜閱者殆半。壬午秋，子晉出鵝溪素絹，命余作圖，因繪此以贈，並系一詩，聊補點染之未備雲耳。” 毛晉，王士禎等，『汲古閣書跋·重輯漁洋書跋』，上海古籍出版社，2006，pp.2-3.

나는 방옹의 유실된 시가 작품과 문장에 관심이 있어, 모든 사적의 기록과 폐관 및 민간에서 전해지는 서적들을 모두 뒤져서 모았다. 남당의 저서와 『노학엄필기』를 교감하여 그 내용을 추가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육우의 흩어져 있던 모든 작품들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모진의 선본과 고본의 수집은 주로 세 개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고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선본 또는 구초본들이다. 두번째는 주변 친구들로부터의 증정본, 세 번째는 다른 장서각에 소장된 선본들을 찾아 필사하여 소장하는 것이었다. 물론 고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였지만, 모든 선본을 전부 돈으로만 수집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자신이 소장한 선본을 개방하지 않는 장서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모진은 일부 장서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가치 있는 서적을 필사하여 번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도 모진의 장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¹⁸⁾ 이밖에도 『전초집(剪綃集)』, 『존전집(尊前集)』, 『사람만선(詞林萬選)』, 『진체비서(津逮秘書)』를 출판할 때 증정 받은 원고들처럼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제공받은 서적들도 급고각의 성공적인 장서 사업을 이끈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송본의 수집과 다양한 분야의 고본 수집에 열정을 쏟아 부은 모진의 장서 활동은 당시의 일반 장서가들과는 차별된 모습이었다. 송본 도서와 고본의 소장 및 출판으로 후세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모진의 장서 활동목적이 오로지 소장만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에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문화 창달을 위한 汲古閣의 출판사업

1) 다양한 종류의 도서 출판

명대는 개인들의 출판이 매우 성행하였던 시기이다. 명 초기에는 출판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개인들의 출판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육용(陸容)의 『숙원잡기(菽園雜記)』에서는 “명 헌종과 영종 시기에는 서적의 출판 활동이 그

17) “余於放翁逸詩遺文，凡史籍載記及稗官野冊摭拾几盡，又訂正南唐書及老學庵筆記附之，意謂放翁小碎，亦無遺珠矣。”毛晉撰，潘景鄭校訂，『汲古閣書跋·家世舊聞』，古典文學出版社，1958，p.10.

18) 葉德輝，『書林清話』，岳麓書社，1999，pp.156-165.

19) 葉德輝，『書林清話』，岳麓書社，1999，p.164.

다지 널리 확산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출판 활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였다(宣德正統年, 書籍印版尚未廣, 今所在書版, 日增月異).²⁰⁾”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개인 출판가들 가운데에는 저명한 장서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풍부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식도 뛰어나며 출판에 대한 태도도 매우 신중하였다. 특히 명대는 상업의 발달로 출판 도서 시장이 매우 활기를 띠었고 국가에서도 도서 출판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등 비교적 완화된 정책을 취하였다. 게다가 제지술, 인쇄술의 발전과 낮은 노동 임금 등 모든 상황이 도서 출판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만력 이후로는 개인들의 출판문화가 최고조에 달하여 모진을 포함하여 저명한 개인 출판가들이 출현하였고, 상숙현은 출판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호응린(胡應麟)의 『경적회통(經籍會通)』에서는 “내가 본 작금의 출판본은 소주와 상숙본이 가장 뛰어나고 뒤이어 남경본과 항주본의 순이다.”²¹⁾라고 상숙 지역의 출판 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모진의 급고각 출판은 당시에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주이존(朱彝尊)은 “(모진은) 진귀한 도서를 구하는데 힘을 쏟아 경전과 사서뿐 아니라 제자백가서 및 전기와 소설류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이런 이유로 출판된 귀한 도서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²²⁾라고 그 출판 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모진의 출판 일생을 전대성(錢大成)의 『모자진년보고(毛子晉年譜稿)』와 기타 자료를 통해 종합해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만력(萬曆) 연간에서부터 천계(天啓)연간으로 그의 나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출판은 어떤 목적성을 지니기보다는 모진 스스로 출판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출판물로는 『굴도합각(屈陶合刻)』, 『검남시고(劍南詩稿)』, 『삼가궁사(三家宮詞)』, 『극현집(極玄集)』, 『신농본초경주소(神農本草經注疏)』 등의 시문류와 의학류의 서적들이 있다. 두 번째는 숭정연간으로 모진의 나이 30세에서 45세로 그의 출판사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출판 서적의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많았다. 대표적인 출판물은 『십삼경주소본(十三經注疏本)』, 『십칠사(十七史)』, 『한위육조백삼명가집(漢魏六朝百三名家集)』 등이다. 세 번째는 1644년부터 1659년까지이며, 모진의 나이 46세에서 61세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명청 왕조의 교체시기로 모진의 출판사업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출판 활동보다 유실된 도서들의 수집과 보충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²³⁾

20) 陸容, 『菽園雜記』卷十(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1985, p89.

21) “余所見當今刻本, 蘇常爲上, 金陵次之, 杭又次之.” 蔣光煦, 『東湖叢記』, 遼寧教育出版社, 2001, p. 1420.

22) “力搜秘冊, 經史而外, 百家九流, 下至傳奇小說, 廣爲鏤版, 由是秘書鈔本走天下.” 朱彝尊, 『曝書亭集』卷79「嚴孺人墓誌銘」

모진의 급고각 출판의 주요 특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부(四部)의 서적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서적과 규모가 방대한 전적의 출판에 치중하였다. 섭덕휘(葉德輝)의 『서림청화(書林淸話)』에서 “명대의 장서가로는 상숙 지역의 모진과 급고각이 가장 이름이 높았다. 당시에 이미 십삼경과 십칠사 그리고 진체비서와 같은 당송원 시기의 필기 잡록부터 도교의 경전과 사와 곡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²⁴⁾라고 하였듯이 경, 사, 자, 집의 서적을 가리지 않았으며 규모가 방대한 서적들이었음 알 수 있다. 경부(經部)의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사서(四書)』, 『오경(五經)』, 『설문해자(說文解字)』 등 대략 60여 종, 1000여 권에 달한다. 사부(史部)의 서적으로는 『십칠사(十七史)』, 『대당기거주(大唐起居注)』, 『남당서(南唐書)』, 『한지고(漢志考)』 등 40여 종 2000여 권에 달한다. 자부(子部)의 서적으로는 『공자가어(孔子家語)』, 『제민요술(齊民要術)』, 『동파제발(東坡題跋)』, 『군방보(群芳譜)』 등 200여 종 600권에 달한다. 집부(集部)의 서적으로는 『문선(文選)』, 『당인선당시(唐人選唐詩)』, 『검남시고(劍南詩稿)』 등 360여 종 2000여 권에 달한다. 물론 이외에도 모진이 친구들을 위해서 출판한 도서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²⁵⁾ 연구 통계에 따르면 1628년부터 1633년 사이에 200여 종의 서적을 출판하였는데 모두 독자들의 수요가 높은 서적들이었다. 모진은 출판 인생을 통해서 모두 600여종의 도서들을 출판하는 등 거대한 도서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다.²⁶⁾ 주이존의 『정지거시화(靜志居詩話)』에서 “(급고각의) 주인 모진은 희귀본 서적들을 수집 소장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중년에 들어서서는 오경과 십칠사 및 시·사·곡·당송 및 금원시기의 필기와 패관소설까지 모두 출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모진이 서적과 예술계에 미친 공은 매우 크다.”²⁷⁾라고 하였듯이 모진이 출판한 총서는 종류도 많고 수량도 방대하여 역대로 많은 학자들이 그의 출판의 공을 높게 평가하였다.

2) 선본 교감을 통한 도서 출판

모진이 출판에서 보인 또 하나의 특징은 선본에 근거하여 정교한 교감을 통한 출

23) 錢大成, 『毛子晉年譜稿』, 國立中央圖書館館刊, 1947.04, p.16.

24) “明季藏書家以常熟毛晉汲古閣爲最著者. 當時曾遍刻『十三經』, 『十七史』, 『津逮秘書』唐宋元人別集, 以至道藏詞曲無不搜刻傳之.” 葉德輝, 『書林淸話』, 岳麓書社, 1999, p.65.

25) 黃李初曹, 「明代出版家毛晉與云南江木增的交往」, 『江蘇圖書館學報』, 1999, p.11.

26) 王重民, 『毛晉刻書的企業經營』, 中華書局, 1992, pp.94-95.

27) “主人毛子晉, 性好儲藏秘冊, 中年自五經十七史及詩詞曲本唐宋金元別集稗官小說靡不發雕. 公諸海內, 其有功於藝苑甚巨.” 朱彝尊, 『靜志居詩話』,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pp.94-95.

판이다. 명대는 전후칠자의 복고운동의 영향으로 고문헌의 출판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시에는 송판본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이익을 추구하는 서상들이 임의로 고서를 고쳐서 출판함에 따라 당시의 출판 시장이 매우 혼탁한 것도 송본의 가치가 주목 받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낭영(郎瑛)의 『칠수류고(七修類稿)』에서는 “세간에서는 송본 시문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출판본은 대부분 오류와 누락된 곳이 많다.”²⁸⁾라고 하여 당시 송본이 중요시 되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섭덕휘는 더 나아가 송본의 활용과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전의 구각본들을 선본이라 하였는데, 근자에 서상들이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소형 서적들로 바꾸어 출판하였고 그 형식이 줄렬하고 내용도 오류가 많다. 예를 들면 ‘巽興’을 ‘巽語’로 오판하였는데, 이는 선본을 잘못 사용한 것인데 마치 선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되었다. 이런 까닭에 초학자들이 잘못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도 과거 시험장에서 잘못 작성하여 낭패를 당하게 되니 이 잘못 또한 심히 크다.²⁹⁾

이처럼 명대의 혼탁한 출판시장은 당시의 문화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송원 판본의 유실로 인하여 그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감 작업을 위해서라도 구각본과 선본의 수집이 출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판을 시작한 모진은 사명감을 가지고 경사자집을 가리지 않고 출판을 진행하였다. 모진은 대체로 송원 시기의 선본을 저본으로 삼아 출판하였다. 모진은 이미 저본이 되는 선본이 높은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는데 있어 핵심임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수중에 들어오는 서적마다 “반드시 다른 판본과 비교하여 교감을 진행하고 직접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완전하게 교감한 후에야 출판하였다.”라고 하였으며,³⁰⁾ 또한 “매일 장서각에 앉아 손으로 여러 서적들을 뒤적이며 그 오류를 바로 잡은 후에야 출판하여 유통시켰다.”³¹⁾라고 기록하고 있다. 모진은 급고각 소장본의 교감 작업 과정에 대해서 “국내의 저명한 교감 전문가들을 모셔와 교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열세 사람이 경

28) “世重宋版詩文，以其字不差謬。今刻不特謬，而且遺落多矣。” 朗瑛，『七修類稿』，中華書局，1959，p. 625.

29) “舊刻頗稱善本，近時書坊射利，改刻袖珍等版。款制褊狹，字多差訛。如巽興訛作巽語，由古訛作猶古之類，豈但有誤初學，雖士子在場屋，亦訛寫被黜，其爲誤亦已甚矣。” 葉德輝，『書林清話』，復旦大學出版社，2008，p.156.

30) “必手自住讎較，親爲題評，無憾於心而始行於世。” 葉德輝，『書林清話』，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8，p.156.

31) “日坐閣下，手讎諸部，讎其訛謬，次第行世。” 葉德輝，『書林清話』，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8，p.166.

부를 책임졌고 열일곱 사람이 사부를 담당하였다. 게다가 네 사람을 추가로 보충하여 총 스물한 사람이 참여하였다.”³²⁾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엄선된 선본을 저본으로 삼아 교감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급고각의 출판 도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판본들은 당시에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설문해자(說文解字)』의 경우 송 판본에 근거하여 번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당시 세간에서는 송본 『설문해자』의 원본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이 밖에도 『공자가어(孔子家語)』, 『송육십명가사(宋六十名家詞)』도 급고각의 출판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특히 『공자가어』와 『춘저기문(春渚紀聞)』 등은 당시에 잔본만이 전해졌는데, 모진의 손을 거치면서 완전한 서적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문헌 정리사업에 있어서 모진이 출판을 통해 기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교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고각 출판본의 가치는 더욱 높아져 갔다. 섭덕회는 “모진이 출판한 서적을 나는 운이 좋아 당시에 수시로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귀중한 서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 지금은 비록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지만 초인본을 구매하지 못했으니 이 또한 눈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꼴이 되었다.”³³⁾라고 당시의 상황을 한탄하였다.

급고각 출판 서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이와 먹의 사용에 있어서 최고의 상품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상품성까지도 높이기 위해 제본에도 매우 심혈을 기울였다. 급고각 본의 종이는 모두 강서성에서 특별히 맞춘 죽지(竹紙)를 사용하였는데, 『상소합지고(常昭合志稿)』에서는 “출판에 사용된 종이는 매년 강서지역에서 특별히 만든 것으로, 두터운 것은 모변, 얇은 것은 모태라고 불렀다.”³⁴⁾라고 소개하였다. 급고각본에 사용된 종이는 후대로까지 전해져 특히 청 건륭년간 이후의 인쇄본들은 대부분 모변지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인쇄의 질을 매우 중요시한 점도 급고각본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청대에 들어서 모진의 출판사업은 약간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모진이 비록 『열조시집(列朝詩集)』, 『운림집외시(雲林集外詩)』 등을 출판하기도 하였지만 명대와 같이 대량의 서적을 출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송정 말년의 흉년과 전쟁으

32) “又招延海內名士校書，十三人任經部，十七人任史部，更有欲益四人，並合二十一部者。因此，大爲營造，凡三所。汲古閣在湖南七星橋載德堂西，以延文士；又有雙蓮閣在問魚莊，以延縉流；又一閣在曹溪口，以延道流。”錢泳，『履園叢話』，北京中華書局，1979，p.579.

33) “毛刻書余幸當年隨意獲之，又悔當年等夷視之，今雖備數而未得選購初印本，是亦失眉睫之事。”葉德輝，『書林清話』，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8，p.178.

34) “所用紙，歲從江西特造之，厚者曰毛邊，薄者曰毛太，”毛晉，『汲古閣書跋』，上海古籍出版社，2005，p.56.

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고 오군향의 많은 부자들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판에 대신하여 유실된 도서의 보충과 화재와 재해로 인한 서관의 수리 및 출판된 도서의 보관 작업에 치중하였다. 모진의 도서 출판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여 문헌의 보전과 공용을 통해 모든 학자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송명 이학의 폐단이 이미 한당(漢唐)의 정통 학문의 도를 벗어난 것으로 여겼으며, 많은 서적을 출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학의 본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출판의 목적 중 하나였다. 전겸익은 이러한 모진의 출판 정신을 “육경을 종루로 삼고 사부를 생황으로 삼았다.”³⁵⁾라고 평가하였다. 모진은 줄곧 유가 사상을 선전하고 세상 사람을 교화하는 것을 자신의 출판 사업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마디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책임 있는 도서출판을 통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진은 말년에 그의 아들에게 “내가 먹고 입는 것을 아껴가면서 정신없이 서적 출판에 온 힘을 쏟은 결과 현재 서관이 10만개에 달하게 되었다. 비록 이 또한 적은 수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전해지는 서적 가운데 그 수가 여전히 10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한다.”³⁶⁾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대목에서 모진이 출판업에 일생을 바친 목적과 사명감을 읽을 수 있다.

4. 결론

명말 청초의 장서가이며 출판가인 모진의 고문헌 정리 작업에서 보인 성과는 역대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모진은 장서란 서적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화 활동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 목적을 문헌의 보전과 전승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두었다. 이를 위하여 모진은 송본 및 구각본 등 선본(善本)의 수집에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선본의 수집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구매하였다. 또한 다른 장서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신이 소장하지 못한 선본들은 필사하거나 증정을 통하여 그 수를 늘려나갔다. 모진이 이처럼 송본 등 선본의 수집에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고 쏟은 것은 선본서의 수집이 양질의 도서 출판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된 송본과 구각본 등은 급고각, 목경루, 정족재, 보월당, 쌍연각 등의 장서각과 서실에 분산되어 소장되었고 그 가치와 중요

35) “考六經爲鐘鼓，奏四部爲笙篳。”錢謙益，『牧齋初學集』，上海古籍出版社，1985，p.1437.

36) “吾縮衣節食，遑遑然以刊書爲急務，今板逾十萬，亦云多矣。竊恐秘冊流傳者，尙十不及一也。”毛晉，『汲古閣書跋』，上海古籍出版社，2005，p.173.

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소장된 선본들은 정교한 교감을 거쳐 출판을 통해 세상에 유포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모진의 장서사업이 그 목적이 소장이 아닌 이용에 있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 창달을 위한 급고각의 출판사업으로 수많은 고본(孤本)과 선본들이 세상에 유통되었다. 특히 출판 작업 중 편집과 교감에 쏟은 열정과 태도는 후세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모진이 장서와 출판에 보인 열정은 송본과 구각본 등 선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가 일생동안 소장한 장서의 수가 84,000여책에 달하고 출판한 도서도 600여종으로 명대 개인 출판가로서는 최고를 기록하였다. 섭덕회의 “모진의 판각 활동은 강남 일대 문헌들의 계보를 잇는 것이기에 옛 것을 탐구하는 선비들은 마땅히 상세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毛氏刻書爲江南一代文獻所系，是則考古之士所當詳知者矣)”라는 평가와, 고정룡(顧廷龍)의 “모진의 장서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 서판의 수량도 무수히 많아, 경사자집의 서적을 포함하여 희귀본들의 수가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그가 문헌 소장과 출판 분야에서 이룬 업적은 실로 작지 않다(藏書震海內，雕槧布環宇，經史百家，秘籍琳琅，有功藝林，誠非淺鮮)”라는 평가를 통해서 보듯이 모진이 장서 활동과 출판사업에서 보여준 내용과 성과는 후세의 귀감이 되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모진의 장서와 출판을 통한 고문헌의 보존과 전파는 후일 목록학과 도서관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게 하였고, 그가 보여준 노력들은 현대 도서관 및 출판계 더 나아가 중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향후 모진의 학술적 성과와 급고각 소장본 및 출판 문헌의 후세 학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范希曾 編, 瞿鳳起 校點, 『書目答問補正』,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劉汝霖, 「魏晉南北朝時期的私家藏書」, 「隋唐五代時期的私家藏書」, 『圖書館』, 1961.
- 朗 瑛, 『七修類稿』, 北京中華書局, 1959.
- [明]陳繼儒, 『隱湖題跋·序』, 常熟丁祖蔭『虞山叢刻』本, 1919.
- [明]毛 晉, 『汲古閣書跋』, 上海古籍出版社, 2005.
- [明]陸 容 撰, 『菽園雜記』, 中華書局, 1985.
- [明]毛 晉 撰, 潘景鄭 校訂, 『汲古閣書跋·家世舊聞』, 古典文學出版社, 1958.
- [明]毛 晉·[清]王士禎 等, 『汲古閣書跋·重輯漁洋書跋』, 上海古籍出版社, 2006.
- 潘美月, 『宋代藏書家考』, 臺北: 學海出版社, 1980.
- [清]葉德徽, 『書林清話』, 中華書局, 2005.
- [清]葉德輝, 『書林清話』, 岳麓書社, 1999.
- [清]蔣光煦, 『東湖叢記』, 遼寧教育出版社, 2001.
- 錢 泳, 『履園叢話』, 北京中華書局, 1979.
- 錢謙益, 『牧齋初學集』, 上海古籍出版社, 1985.
- 錢大成, 『毛子晉年譜稿』, 國立中央圖書館館刊, 1947年4-6月.
- 葉夢得, 『石林燕語』(文淵閣四庫全書本) 卷八.
- 王余光, 『藏書四記』, 湖北辭書出版社, 1998.
- 王國維, 『觀堂集林·雪堂校刊君書敘錄序』, 上務印書館, 1983.
- 王重民, 『毛晉刻書的企業經營』, 中華書局, 1992.
- 周 密, 『齊東野語·卷十二(書籍之厄)』, 商務印書館, 1990.
- 張之洞, 『書目答問』, 上海古籍出版社, 1983.
- 朱彝尊, 『靜志居詩話』,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 朱彝尊, 『曝書亭集』, 商務印書館, 1935.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明代, 藏书, 毛晋, 汲古阁, 古文献				
	영문	Ming Dynasty, Collection of books, Mao Jin(毛晋), Jigu Pavilion (汲古阁), Ancient literature				
<div>Investigation on the Book Collection Activities and Publishing of Private Collectors in the Ming Dynasty : Centered on Maojin and Jigu Pavilion</div> <div>Seo Weon-Nam</div> <div>In the Ming dynasty, the collection and publication of books by individual librarians was very active due to economic prosperity,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and the collection culture handed down from the Song dynasty. He has a collection of 84,000 books, and has published a total of 600 books, including books from the four departments, including novels and writings. The collection of books(藏書) is a cultural activity that values books very much, because books are an important tool for the transmission and inheritance of culture. Mo jin's collection was based on this spirit. Mojin recognized that the collection of books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llection and the core of publication. In addition to the manuscripts, rare books were brought to the world through professional sympathy work. For this reason, the published version of Gupgogak(汲古閣) at that time gained fame both at home and abroad. Mo Jin's passion for collection and publishing activities not onl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future generations, but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work of organizing ancient documents in China. Mo jin, who devoted himself to collections and publications for 40 yea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ivate collections and publications during the Ming and Qing perio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achievements of Mo Jin's lifelong family business, collection and publishing, and how it had an impact on the arrangement of ancient literature in China.</div>						
저 자	서원남 / 徐元南 / Seo Weon-Nam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2.20.	심 사 일	2022.02.24.	게재확정일	2022.03.11.